

◆ Coface, 해외투자보험업무 개선

Coface는 3월 1일 해외투자보험업무 개선안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의 개선안은 보증범위 확대와 보증조건 완화를 통해 투자자의 요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1972년부터 해외투자 시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불안이나 이에 따른 자산몰수(expropriation), 외화반출 금지 등 광범위한 비상위험(political risk)을 커버해온 Coface의 해외투자보험 업무는 현지법인에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까지 보험수혜자를 확대하는 등 개선을 거듭해 왔다. 이번 개선

을 통해서 보험계약자들은 자산몰수, 외화반출 금지 등 보험에 부보할 위험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산몰수보험의 경우 투자대상국 정부의 허가 철회, 업무에 필요한 정부의 이행의무 불이행까지 포함하여 현지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도 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투자보험의 지원대상은 1,500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기업과 해당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다.

【안 선 우】

◆ Natexis, Coface와 공동으로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에 대한 보증업무 개시

프랑스 Natexis Banques Populaires와 Coface는 영국 Londesborough Finance의 통신산업 국제매출채권(receivables)에 대해 공동으로 보증과 보험을 취급하기로 결정하였다. Natexis의 자회사인 Coface UK에 의해 주선된 이번 계약은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이 금융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민간 신용보험회사(private credit insurer)와 무역금융기관(trade finance bank)이 협력한 사례가 되었다. Natexis와 Coface는 앞으로 Londesborough가 국제 통신량(cross border telecoms traffic)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매출채권(receivables)을 담보하게 된다. 이 매출채권(receivables)은 글로벌 통신도매시장(global telecommunications

wholesale interconnect market)에서 기초자산이 된다.

이전까지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receivables)은 가치산정이 어려워서 유통되기 힘들었다.

그러나 Londesborough의 새로운 평가시스템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매출채권(receivables)의 가치를 상세통화기록에 기초해 산정된 통신시간으로 평가하여 정확성을 높였고, 시장에서 유통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이 시장에서 유통되기 위해서는 지불위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이 요구되었으므로 Natexis와 Coface의 참여가 요구되었다. Natexis, Coface와의 이번 보증·보험 계약으로 인해 Londesborough는 매출채권을 양도배서할 수 있게 되었고, 구

매자가 요구할 경우 일람불 보증서(on-demand guarantees)를 발급하거나 Natexis에서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발행할 수도 있다.

Natexis는 보증기간 3개월의 보증서 발급한도를 설정하고, 거래가 증가하면 점차 한도를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 Natexis는

올해 매달 5,500만 달러의 매출채권 발행을 지원하고, 3년 안에 연 9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지금까지 낮은 신용도로 인해 거의 유통되지 않던 통신산업의 국제매출채권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 선 우】

◆ 체코수출보증보험공사(EGAP), 2005년도 실적 발표

EGAP는 2005년 중 보험을 통해 총 2,200억 코루나(CZK, 약 95억 5,027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GAP는 수출보험으로 총 300건, 225억 CZK 규모를 지원했는데, 그 중 190억 CZK를 단기수출에 지원하였고, 35억 CZK는 불가리아의 수력발전소 건설, 타지키스탄의 시멘트 공장에 대한 장비수출, 아제르바이젠 바쿠의 발전소설비 등 중장기 수출거래에 지원하였다. 지역별로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러시아로의 수출을 주로 지원하였다. 보험금 지급액은 6억 CZK로 2004년의 7억 3,900만 CZK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에 적극적인 손실방지로 1억 4,500만

CZK의 손실을 방지한데 기인하며, 아울러 1억 8,000만 CZK의 미수채권을 회수하였다.

2005년 9월 1일부터 EGAP는 정부계정과 함께 운영하던 상업베이스의 신용보험은 자회사인 상업신용보험회사(Commercial Credit Insurance Company)로 이관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하였다. 상업베이스의 신용보험 규모는 급속히 성장해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18% 증가한 1,000억 CZK(150개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의 수출을 지원했다. 한편,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7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안 선 우】

국 제 기 구

◆ IFC, GTFP 제도를 통해 1억 2,590만 달러 보증 제공

국제금융공사(IFC)는 Global Trade Finance Programme(GTFP)을 통해 120여건의 무역거래에 1억 2,590만 달러의 보증을 제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IFC는 동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보증의 50% 이상을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케냐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와 관련된 거래에 제공하였다.

2006년 3월 말 현재 GTFP를 통해 120여